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장 소 현

- 대일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 합격

I. 시작하면서

꿈만 꾀오던 합격수기를 쓰게 되다니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어렸을 적부터 꿈꿔오던 법조인의 길에 드디어 한걸음 내딛었다고 생각하니, 기대와 걱정이 함께 느껴집니다. 저는 법학과에 진학하여 2009년부터 조금씩 수험을 위한 공부를 해왔는데, 2012년에 처음 1차에 합격하였고, 2015년에 4시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짧지 않은 수험기간이었고, 좌절이 많았던 기간이었지만 결국은 목적점에 다다르게 된 방법들을 미숙하지만 공유하고 싶습니다.

II. 1차 준비방법 -2012년, 2014년도 합격

2012년은 몇 번의 불합격의 고배를 마신터라,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도전했던 때였습니다.

우선 민법은 지원팀 교수님 저 민법강의를 보았습니다. 그때는 한창 박기현 저의 핵심정리책이 1차 수험에 적합하다 하여 많이 불안했으나, 기출을 표시하면서 회독수를 늘리기 위한 책 정리를 해감으로써 불안을 떨쳐냈습니다. 저는 진도별모의고사를 필수적으로 모두 보았는데, 이 때는 김동진 강사의 강의도 들음으로써 책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도를 하면서도 틀린 문제를 제대로 체크해서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고, 책에 부가하여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최신 3개년 정도의 판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읽었습니다. 민법의 중요성과 그 무게감을 알기에 다른 과목을 하면서도 진도 틀린부분 정리할 것을 반복해서 보고 최신판례 3개년을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진도를 하면서도 갈팡질팡한 부분은 포스트잇으로 표시해 두고, 막판까지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형법은 처음으로 신호진 저의 형법강의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판례는 이용배 강사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판례 이해를 도왔습니다. 형법은 특히나 판례의 암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판례의 결론을 암기하는데 치중하였고, 민법과 마찬가지로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틀리는 부분은 기본서에 정리를 하면서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헌법의 경우는 정희철 저의 기본강의 헌법을 보았습니다. 김유향 강사의 강의를 들으며, 헌법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도왔습니다. 헌법은 조문을 틈틈이 암기하려고 보았으며, 판례 또한 감을 잃지 않으려고 중요판례나 최신판례를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통치부분은 카페 자료로 표 등으로 서식화한 것을 참고하거나 스스로 정리하여, 정리된 자료로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헌법의 경우는 판례가 방대하여 봐도 봐도 헛갈리기 다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이해후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에 저는 진도별 모의고사 전에는 진도에 따른 기출문제 문제집으로 중요부분의 강약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모의고사 점수로 인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으려고 점수에 치중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을 틀린 것은 아닌지 공부를 했는데 모르는 게 어느 정도 인지를 판단하려고 노력하였던 거 같습니다.

두 번째로 1차를 합격하였을 때는, 재시 불합격으로 곧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갈팡질팡하다가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때에는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승부를 봐야 하므로, 압축된 공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합격이 좋은 성적은 아니었으나, 민법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하며 중요부분의 회독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하였고 형법과 헌법은 기본서를 위주로 하면서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전범위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봄으로써 1차의 감을 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기출문제집에 체크했던 틀린문제 위주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다행히도 다시 한번 2차시험을 볼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Ⅲ. 제2차시험 준비방법

1. 재시의 경우

초시 때에는 학원 2순환 강의를 들었는데, 이해가 선행되지 않아서 인지, 3과목 정도가 과락이 나왔습니다. 이후 재시 때에는, 1순환 부터는 제대로 성실히 임하면 당연히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과오였던 거 같습니다. 사실 학원의 순환에 따라서 진도를 따라가기 급급하여 이해보다는 진도에 밀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앞서게 공부를 했기에, 이해가 부족하여 답안지가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를 보면, 특히나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낮게 나왔는데, 형법의 경우는 사례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답안의 구조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던 것 같고 형사소송법의 경우 또한 이해가 미흡한 채 단순암기에 그친 공부로 인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간절함과 노력이 앞서야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세운 치밀한 계획과 그에 따라 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보다도 짜여진 일정에 따라가려고만 했던 것이 아쉬웠던 기억입니다.

2. 3시의 경우

제시에 떨어지고 친 1차시험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손을 놓고 있다가 발표가 난 이후에 부랴부랴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책의 회독을 늘리면서 3순환정도를 보았는데, 이 때는 스테디를 함께 하면서 암기에 치중하여 각 과목별로 주요 사례 구조를 외우는 데 비중을 두었으며 기본 3법의 경우 시간을 별도로 할애하기 어렵기 때문에 후사법과 병행하여 사례를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3시의 경우에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고, 공부양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것이 주요인인 듯 하고, 판례의 입장과 그 문구를 정확하게 외우지 못한 것, 고득점인 과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1차 때 공부했던 기본3법을 조금만 더 신경써서 공부했다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3. 4시의 경우

대망의 마지막 기회.. 자꾸만 지체되는 합격의 길 때문에, 약간은 초월한 기분이었지만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기 위해 또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으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이은 불합격에 의기소침해 지고 감정이 무뎠지는 거 같았지만, 같이 공부하는 선배님들과 후배들 덕에 자리를 잡아가며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3시때의 점수를 보면, 딱히 고득점이 없어서 문제 외기에 자신있는 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신있게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헌법의 경우는 정회철·김유향 저의 헌법연습을 보았으며 이에 헌법 핵심정리300의 암기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책보다 모의고사 사례가 최신의 경향을 반영한다는 느낌이어서, 이에 더 비중을 두었습니다. 즉 기본서는 틀을 잡는데 참고하였으며, 순환별 모의고사 문제를 반복하며 암기하였습니다. 나올만한 판례나 쟁점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시사적인 문제들과 연결시켜 고민도 해보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형법의 경우 이인규 저의 형법의 쟁점과 사례집을 보았습니다. 쟁점정리책으로 쟁점사안들을 하루에 몇 개씩 보기로 계획을 하면서, 기출문제 또한 매일매일 3개 정도씩 보면서 형법의 감을 잃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순환별 모의고사는 이재상 강사의 것으로 하면서 구조를 비교하고 최신판례를 간과하지 않도록 하며 강약을 조절하였습니다. 특히나 재시때의 구조를 파악하지 못한 패인을 생각해서 범죄체계론을 고려하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공부하였습니다.

민법의 경우 박승수 저의 민법정리를 보았습니다. 재시때부터 정리한 책이어서 끝까지 유지하였으며, 모의고사를 운동한 강사의 것으로 하면서 비교하며 정리해 나갔습니다. 민법 또한 1차때와 같이 매일매일 사례를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기출문제를 실제로 답안지 작성을 하는 스테디를 함으로써 비중을 두었습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하면서 목차 잡기 또한 연습하였는데, 반복하면서도 답안 구성이 술술 써지지 않아 민법의 벽을 실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 이창한 저의 통합민사소송법으로 하였으며, 사례책은 강의2순환을 들을 때 정독하는 것으로 그치고 이후는 통합 민사소송법책으로만 정리해 나갔습니다. 중요하지만 통합책에 누락된 부분은 별도로 메모로 통합책에 단권화를 시켰습니다. 후사법은 쟁점을 추출할 수 있더라도, 쟁점을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리들이 암기되어 있지 않다면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반복과 반복에 따른 암기를 해나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나 소송법은 비슷한 용어들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서,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비교해가며 보았고, 막판에는 크게 중요하게 되지 않는다고 되는 부분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넘기고 중요쟁점 위주로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재시때까지는 정주형 저의 최종정리 형사소송법책을 보았으나 이후 사시때에는 김영환 저의 형사소송법 책으로 정리하면서 최종정리 책을 부가적으로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체계가 잘 잡히지 않는 거 같아 책을 바꾸었는데, 사실 두 책의 정리체계가 조금은 상이하여 혼란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주형 강사의 순환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답안 작성에 크게 문제되지 아니하는 거 같아 김영환 저의 책을 정리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흐름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상법의 경우 김혁봉 저의 상법신강책을 보았습니다. 이 또한 재시때부터 봐오던 책인데, 황의영 강사님과 김남훈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보고 황의영 저의 사례집 또한 보았는데 결국은 기출문제 위주로 강약을 조절하자는 결론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때 마지막 회독수를 늘릴 때나 시험 전날에 보기 수월하도록 문답책으로 정리를 할까 하여 시도하였으나, 정리된 책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 결국은 신강책을 보게 되어 이 방법이 유효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법은 보험법과 어음수표법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막판에 선택적으로 보거나 방대한 양으로 비중있게 보기 어려우므로 2순환 정도쯤부터 이를 마지막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갔습니다. 상법은 특히나 모의고사를 볼 때나 새로운 문제를 접할 때마다 시험에 드는 느낌이었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더라도 답을 보고 다시금 고민을 해본다던가 기본에 충실하자는 마음으로 배제시키면서 공부량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3순환까지는 대체적으로 모의고사를 응시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4순환의 경우는 격일로 답안지를 작성해 보던가, 목차를 잡는 방식으로 쟁점 찾는 연습을 놓지 않았습니다. 과목에 따라 기출문제 등을 통하여 문제의 유형을 생각해보고, 전형적으로 문제해결에 요구되는 기본적인 사항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과목에 따른 중점을 맞추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험기간이 길어지면 자기나태에 빠지기 쉽기도 하고, 일정한 자극이 필요하기에 스테디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을 외우는 것을 하면서, 민법 사례를 푸는 스테디와 기출문제를 실전 답안지 작성하기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혼자서도 매일 하는 계획으로 아침에 오면 형법 기출문제를 3문제 정도 목차를 잡는 것을 시작으로 하였고, 점심에는 민법사례 목차를 작성하는 스테디를 하였으며 저녁에는 헌법300 암기 및 최근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스테디를 하여 하루의 균형을 잡아 나갔습니다. 막판에는 잘 외워지지 않는 과목들을 위주로 순환별 모의고사의 구조를 외우기 위한 스테디도 하였습니다.

재시때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사시때에는 헷갈리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비

교하면서 반복해서 암기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중요부분을 변별력있게 판단하여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 암기에 그치지 않고 이해해보려는 노력이 가미되었던 거 같습니다. 또한 기본서를 보면서 조문을 간과하지 않도록 반복하여 자연스럽게 외위하도록 하였습니다. 순환별 모의고사 문제들을 기본서에 체크하여 출제빈도나 중요도를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순환별 시험을 응시할 때에는 진도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있는 과목은 먼저 진도를 빼거나 하는 식으로 조절하였으며, 보지 않은 부분에서의 문제가 나오거나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시험장이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답안지를 작성해 보려고 연습하였습니다. 시험장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말자는 마음가짐 연습을 하면서, 모의시험을 보면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들도 해결해 보려는 고민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였던 것 같습니다.

IV. 기타 수험생활에 관하여

1. 체력분배

시험에 임박하지 않을 때에는 요가를 다니다던지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였으나, 다른 때와는 다르게 이번 사시 때에는 막판에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영양주사를 맞으면서 근근히 헤나갔습니다. 왜 하필 막판에 이러냐며 자책도 되었지만, 긴장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껏 해온 나를 믿자는 믿음으로 마지막을 버텼습니다. 일정한 운동을 계속해서 해감으로써 체력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신만만하다가도 마지막에 시험에 대한 압박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으로 몸이 많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굳건한 마인드로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수험기간을 버텨 나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2. 슬럼프

저는 슬럼프가 딱히 있기 보다는, 주위와 비교되며 스스로가 작아질 때가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때에는 주위 친구들 또는 선배들의 진심어린 조언들과, 스스로도 비교하지 않고 주체적인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마음먹으며 힘든 시간을 버티어 갔습니다. 혼자라면 많이 지치고 무너질 수 있었을 수도 있었을텐데 고시반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부 가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장소를 바꿔서 공부를 한다던지 잠시 바람을 쐬다던지 하는 식으로 몸뿐만 아니라 머리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장기전에 대한 컨디션 조절을 했습니다.

3. 시간관리

하루에 달성하고자 하는 공부시간을 정해서 이를 아침, 점심, 저녁 시간으로 잘 분배하여 하루의 균형이 맞춰지도록 하였으며 특히나 아침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 4시간은 할당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길다해도 집중하

지 못하면 하루가 공허하게 느껴지므로 순간순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일요일은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미진한 부분을 다시 보거나 밀린 부분을 조금씩 보려고 하였습니다. 일요일은 공부가 제대로 되지는 않으나, 책을 보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겨서 아주 조금씩이라도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4. 답안작성

재시때까지는 신림동 학원에서 작성하는 연습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학교 고시반에서 선배들이 답안지 형식을 검토해주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내에 아는 내용을 다 쓰기도 어려운데 어떤 기술을 생각하며 쓰나 하는 생각이었는데, 채점위원들께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답안지를 깔끔하게 기술적으로 서술하는 것도 득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범명을 제대로 적시한다든지, 목차의 소재목에 논의되는 법 조문을 명시하고 시작한다든지, 앞뒤 위아래의 여백을 두어 균형잡힌 답안지로 구성한다든지, 최대한 많은 조문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 등의 것들은 모의고사를 보면서부터 조금씩 고민하여 형식을 틀로 만들고 이를 손에 익숙하게끔 연습하였습니다.

5. 암기

암기는 선이해 후 암기라는 것이 원칙인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을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도 분별있는 암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에 걸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이해가 미진한 부분은 우선 암기를 통하여 외으려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는 길게 보면 법리적 해결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이해하지 못해서 놓아두는 것보다는 눈으로 기억함으로써 미진하더라도 써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V. 나가며

자신감이 떨어져서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있을 때, 격려를 주시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선배님, 친구들, 후배들, 우리 가족들 너무 감사합니다. 솔직히 성실함을 무기로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도 방법론적으로 공유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아서 이 글을 쓰면서도 내가 자격이 있는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방법론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나, 저 같은 보통의 사람도 결국은 붙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시험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범조인을 꿈꾸면서 자기의 한계를 시험하고, 그 좌절의 순간들과 고통을 견딘 자만이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이 너무나 희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공허했던 저에게 이렇게 큰 인생 최대의 선물이 주어져 너무나 기쁩니다. 절망 뒤에는 희망이 뒤따르기 마련이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도 멀지않은 이 기쁨을 느끼는 그 날을 꿈꾸며, 꼭 그 날이 현실화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